

記文으로 본 世祖연간 王室願刹의 전각평면과 가람배치

이 경 미

(주,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소 소장)

주제어 : 왕실원찰, 세조연간, 가람배치, 중층불전, 橫廊, 전각평면

1. 머리말

조선전기 불교건축 연구는 다른 시기에 비해 뒤쳐진 면이 없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진 억불시책으로 인해 전대에 비해 크게 위축된 처지에서 새로운 불교건축을 창안해 낼 수 있었을까 라는 저평가 분위기도 연구가 부진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이면에서는 창업주 태조를 위시하여 성종 때까지 조선왕실은 불교 최대의 후원자였다. 그 가운데서 世祖는 두드러진 好佛 성향의 군주였다. 그는 대군시절부터 역경사업에 관심이 깊었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꾸준히 불경을 간행하는일에 기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守眉를 妙覺王師로 책봉하고 信眉(1405?~1482?)와 두 제자인 學悅·學祖를 三和尚으로 존경하여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게 했으며,¹⁾ 자신과 왕실이 발원한 절을 짓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적극 배려하였다.²⁾

1)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해안, 2005, 487쪽.

세조연간에 단행된 불사 가운데 원각사와 정인사, 상원사, 봉선사 네 사찰이 지닌 의미는 특별하다. 세조는 요절한 맏아들 의경세자(추존 德宗)의 묘소 곁에 正因寺를 지어 명복을 빌었고, 도성 안에 圓覺寺를, 오대산에 上元寺를 짓고 원찰로 삼았다. 세조 사후에는 왕실 주도로 光陵 능침사찰인 奉先寺를 창건하였고, 정인사를 중창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일련의 공역에는 학열과 학조, 그리고 수미의 도반으로 알려진 雪峻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懶翁惠勤의 문도(法孫)로서 억불시책이 강화되고 성리학이 정착되던 시기에 불법 흥성을 위해 전면에 나섰던 승려를 대표한다.

왕성한 불사를 추진했던 세조연간은 고려말에서 계승된 조선전기 불교건축의 동향을 살

2) 세조연간 삼화상에 관한 연구는 「세조 대 삼화상 신미와 학열·학조」,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해안,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들 삼화상과 연관된 사찰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미는 대자암·현등사·북천사·해인사 등에서 머물거나 공사에 참여하고, 학열은 양양 낙산사, 오대산 상원사, 봉선사, 해인사 대장경인출에 간여하였으며, 학조는 유점사·봉선사·직지사·해인사·진관사·대자사·낙산사와 해인사 대장경 인출에 참여한 행적이 찾아진다. 이들은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왕실원찰에 주석하면서 왕실법회를 주관하는 등 당시 불교계를 주도해 나갔다.

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이때 조영된 사찰 가운데 당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예는 찾기 어렵다. 일찍 폐사된 원각사와 정인사는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운영되는 봉선사와 상원사에서도 세조연간의 모습만 분리하여 추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세조연간의 불교건축은 어떤 방법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사찰 조성 때 작성한 記文이 남아 있어 전모는 아니지만 개관은 가능하다.

金守濶(1409~1481)은 신미의 동생이관 이유와 더불어 개인의 호불 경향으로 인해 종종 공격을 받았다.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걸출한 문장가답게 세조연간을 전후하여 왕실원찰 기문을 대부분 맡아 집필하였다. 그가 쓴 기문은 다른 집필자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편차가 심해서 아주 상세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간략한 예도 있어서 전부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나 앞에서 거론한 네 사찰의 기문, 즉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并書」, 「上元寺重創記」, 「奉先寺記」, 「正因寺重創記」는 개별 건물간의 위치관계와 규모를 밝히고 일부 주요 건물은 평면과 구조까지 기술하고 있어 당시 사찰을 개략 재구성할 수 있을 수준이다.³⁾

따라서 본 글에서는 김수온이 작성한 네 편의 기문을 중심으로 여기에 드러난 각 사찰의 건축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세조연간 불교건축의 경향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세조연간 왕실원찰에 적용된 건축특성과 경향을 밝혀내는 일은 해당 시기 불교건축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행하는 불교건축의 변화와 함께 조선 후기 사찰공간을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기문 가운데 일부는 성종 초에 작

3) 김수온의 문집 『拭菴集』 권2, 記類에는 분석대상인 네 사찰을 포함하여 모두 35편의 기문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 사찰에 관련된 글이다.

성된 시차가 있으나 성리학을 널리 확산시킨 군주로 평가받는 성종도 1476년(성종 7) 친정 체제를 펴기 전까지는 院相과 대비가 수렴정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세조의 정책을 잇고 있었고 불교정책도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한다.⁴⁾ 이렇게 세조연간의 모든 분위기가 성종 초까지 여과를 미쳤듯이 건축풍토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전제 아래 성종 초에 작성된 기문을 세조연간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2. 세조연간 왕실원찰 記文의 건축 특성 분석

2-1. 창건 圓覺寺와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并書」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세조의 신행 가운데서도 『원각경』 신앙은 특별했다. 세조는 삼장 12부 중에 오직 『대원각경』이 頓敎의 참된 도리라고 여겨 이를 유포하려던 참에, 1464년(세조 10) 효령대군 李補(1396~1486)가 주도한 회암사 원각법회에서 여래가 현상하고 감로가 내리는 祥瑞를 만났다.⁵⁾ 이를 계기로 삼아 도성 안에 터만 남았던 興福寺를 다시 일으켜서 원각사를 짓기로 결정하고,⁶⁾ 신속하게 조성도감을 설치하는 한편 종실과 유력한 관원을 도제조와 제조, 부제조에 임명하였다.⁷⁾

4)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해안, 2005, 178~179쪽 ; 김갑주, 「원상계의 성립과 기능」, 『동국사학』 12, 1973 ; 이동희, 「조선초기 원상의 설치와 그 성격」, 『전북사학』 16, 1993 ; 이봉춘, 「조선 성종조의 유교정치와 배불정책」, 『불교학보』 28, 1988.

5) 金守濶,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并書」, 『속동문선』 권20, 碑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이하 본 글에서 인용한 김수온의 기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에서 인용하였다.

6)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5월 2일(갑인). 이하 본 글에서 인용한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www.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였다.

7)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5월 3일(을묘). 창건동

임금이 직접 공사현장에 나가 開基를 살피는 관심을 보였고, 독려를 통해 이듬해 1465년에 낙성하였다.⁸⁾ 다소 과장은 섞였겠지만 「대명조선국대원각사비명병서」(이하 원각사비)에는 원각사의 규모와 계획, 위치와 순서를 세조가 친히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어 단지 단월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건축가로서의 공헌도 상상할 수 있다.

「원각사비」는 1471년(성종 2)에 비석을 세웠는데 아래에 건축과 연관된 부분만 인용하였다.

1)-㉑佛宇中峙賜額大光明殿 1)-㉒左爲禪堂右爲雲集 1)-㉓門曰寂光之門 次外曰般若之門 次外曰解脫之門 1)-㉔栖鍾有宇曰法雷之閣 1)-㉕供辦有廡曰香寂之寮 1)-㉖鑿沼東偏植之美渠西開園苑樹以花卉 1)-㉗正殿之後度置藏經曰海藏之殿 1)-㉘又建窠都婆十有三層安分身舍利及新譯圓覺經 1)-㉙殿堂寮舍倉庫廚湑各得爲序.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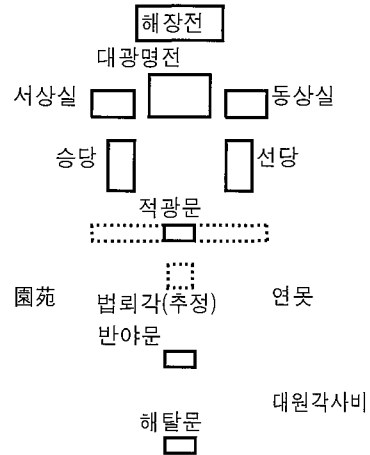
1)-㉑~㉒은 중심 영역의 건물을 설명하였다. 주불전은 대광명전으로 이를 일러 불우 가운데 우뚝하다는 표현을 미뤄 볼 때 단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액 받은 당호로 짐작할 때 안에는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고 판단된다. ㉓은 대광명전 좌우에 선당과 운집을 두었다고 하므로 선당과 승당을 좌우(동서)에 둔 배치로 보인다.

1)-㉔은 사역 안쪽에서부터 세 개의 문, 즉 적광문-반야문-해탈문을 차례로 마련한 山門 체계를 알려준다. 1)-㉕~㉖은 종각인 법뢰각¹⁰⁾과 음식을 만드는 향적료가 자리한 영역

으로 주요 전각 이외를 대표하는 건물로 이 두 채를 거론한 듯하다. ㉗은 동편에 개착한 연못과 서편의 화원을 조성했다고 하나 위치는 불명확하다.

1)-㉘은 정전 뒤편에 경전을 봉안한 해장전을 지어 주불전 뒤로도 별도 예불공간을 안배하였다.

1)-㉙은 십삼층석탑을 만들어 분신사리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안치하였는데 탑의 위치는 기술하지 않았다.¹¹⁾ 1)-㉚에는 앞서 거론한 건물을 포함하여 전당과 요사, 창고와 주방, 목욕간이 질서를 얻었다고 하여 전체 배치가 조화롭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김수온은 기문마다 이와 유사한 서술방식을 즐겨 쓴다.



<그림 1> 원각사 배치 추정안

「원각사비」에 실린 건축 상황은 아주 소략하고 각 건물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실마리 몇 가지는 제공한다. 첫째, 주요 건물로는 정전 대광명전과 선당과 운집(승당)으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사

기인 서기는 원각사를 짓는 동안에도 수차 나타났다.

8) 임금이 거동한 날짜와 낙성일은 실록과 비문에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

9) 金守溫,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并書」, 『속동문선』 권20, 碑銘.

10) 1463년(세조 9)에 지은 「圓覺寺鐘銘」에는 종각을

雲雷閣이라 하고 있어 공사 도중에 종각 이름을 개칭한 것으로 짐작된다.

11) 원각사의 사역은 서울 탑골공원 일대에 해당한다. 원각사탑(국보 제2호)과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는 공원 안에 잔존하고 있으며, 지금은 원각사지십삼층석탑으로 부르나 본 글에서는 비문에 근거하여 십삼층석탑으로 기술하였다.

역은 세 개의 문으로 전체 영역을 구성한다. 셋째, 종각과 향적료가 존재했다. 넷째, 연못과 화원이 있었으며, 다섯째, 주불전 뒤편에 또 다른 예불공간인 범보신앙을 위한 해장전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십삼층석탑이 존재했고, 일곱째, 여러 건물들과 함께 목욕간 같은 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그림 1> 원각사 배치 추정안을 작도하였다.

2-2. 중창 上元寺와 「上元寺重創記」

오대산 상원사는 조선 초부터 나라와 연줄이 닿아있었다. 국초부터 나라에서 거행하는 水陸齋를 지내는 水陸社였고, 명산에 위치한 덕에 地德이 좋은 절로 명성도 높아서 명산승지에 절을 짓겠다는 세조의 의지와 부합되는 장점을 고루 갖추었다. 1464년(세조 10) 세조로부터 걸 맞는 장소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은 신미 등은 화재를 입어 터만 남은 오대산의 상원사 터를 추천하고, 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중창을 시작할 수 있었다.¹²⁾

1465년 2월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¹³⁾ 같은 해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1466년에 마쳤다. 상원사 영건 업무는 학열이 도맡았으나 신미·학조 등도 참여하였으며,¹⁴⁾ 세조는 친히 상원사에 행차하여 낙성을

12) 金守濶, 「上元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오대산 상원사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절로 월정사의 말사이다.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는 문수동자상 및 여러 불·보살상의 조성연대를 알려주는 발원문이 들어있었는데 불상을 만들게 된 경위와 조성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였다. 첫 번째 발원문은 1466년(세조 12) 세조의 둘째 딸인 의숙공주와 부마 정현조의 후원에 대한 기록으로 건물뿐 아니라 각종 법구 마련에도 왕실이 적극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 『세조실록』 권35, 세조 11년 2월 2일(정유).

14) 金守濶, 「上元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기문에는 공사는 학열이 주도한 분이기이지만 터를 신미가 정했고, 중창 권선문인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국보 제292호)에 신미·학열·학조 등의 수결이 있기 때문이다.

지켜봤다. 김수온이 쓴 「상원사중창기」에는 규모 56칸에 달하는 상원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佛殿東西 皆置上室 公別寓巧智 撤上室兩壁 代以障子 若大精進 則揭其兩障 與佛殿通爲一場 2)-㉡南廊之間 起樓五間 以樓鍾磬道具 仍門其下 通其出入 2)-㉢東上室之東 立羅漢殿 西上室之西 立青蓮堂 2)-㉣青蓮之西 又有齋 2)-㉤廚室 僧堂 禪堂 廚庫 泡湍之處 無不各得其宜 2)-㉥以楹計者 總五十有六.¹⁵⁾

2)-㉠ 상원사만이 아니라 통상 불전과 상실의 위치가 어떤지를 밝히고 있어 다른 사찰의 불전과 상실 위치를 규명하는데 아주 요긴하다. 게다가 건축공사를 맡은 학열은 기교를 발휘하여 상실의 양쪽 벽을 철거하고 장지로 대신함으로써 대정진할 때 양쪽 장지를 들어올려서 불전과 한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¹⁶⁾

2)-㉡에는 남랑의 존재와 누각, 그리고 누하진입 방식을 알려준다. 남랑은 규모나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다. 누각 위치는 남랑 밖으로 추정되는데 규모 5칸이며 상부에는 종과 경쇠를 비치하였다.

2)-㉢~㉣은 동서상실 좌우의 건물 배치관계를 설명하였다. 동상실 동쪽에는 나한전이란 예불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대등한 위치인 서상실 서쪽에는 청련당을 두었다고 하는데 당호만 가지고는 어떤 성격의 전각인지 불명확하다. 청련당 서쪽에는 또 재를 지었다고 하므로 서쪽 영역은 동쪽에 비해 공간이 넓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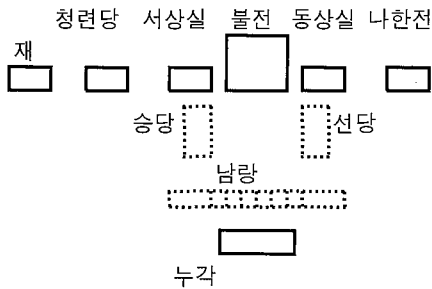
2)-㉤에 나온 건물은 廚室과 僧堂·禪堂·廚庫·泡湍 5개소를 가리킨다. 주불전 영역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승당과 선당의 존재를 볼 수

15) 金守濶, 「上元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16) 기문 가운데 「公別寓巧智」에서 공은 바로 앞 문장과 의 관계를 볼 때 열공 즉 학열을 가리킨다.

있다. 이외 주실과 주고는 부엌과 창고로 판단되며, 포벽은 두부를 만드는 건물과 목욕간 합친 단어로 풀이할 수 있다.¹⁷⁾

「상원사중창기」는 간략한 기문이지만 비중 높은 단서를 접할 수 있다. 첫째, 주불전과 동서상실의 결합 관계, 둘째, 주불전 전면에 남랑의 존재, 셋째, 그 전면의 누각과 누하진 입 방식, 넷째, 동서상실 좌우의 예불공간과 전각 배치, 다섯째, 승당과 선당, 여섯째, 조포 기능과 목욕간 같은 건축특성으로 정리되는데 이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그림 2> 상원사 배치 추정안

상원사와 거의 동시에 조성한 낙산사는 분석대상과 유사점이 보인다. 1466년 상원사 낙성에 참가할 무렵 세조는 금강산에 올라 曇無竭菩薩을 예배하고 인근의 양양 낙산사를 찾았다. 이곳에서도 사리가 분신하는 상서를 경

험하자 상원사 공사를 맡았던 학열로 하여금 낙산사 중창불사까지 추진하게 하고 자신의 자복사로 삼았다.¹⁸⁾

이때 조성한 낙산사의 면모는 「洛山寺鐘銘」에 100여 간에 달한 규모, 그리고 온갖 비품을 갖출 때 종도 새로 주조했다고 알려져 있다. 「낙산사중명」을 김수은이 짓고, 신미·학열 등이 관계한 정황에 근거할 때 낙산사도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건축특성이 반영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조금 뒤긴 하지만 낙산사 동상실을 숙소로 사용했다는 금강산 기행문으로 미뤄 낙산사에도 상실을 갖췄을 가능성은 농후하다.¹⁹⁾

2-3. 奉先寺와 「奉先寺記」

봉선사는 세조의 光陵 곁에 마련된 陵寢 사찰로 산릉과 함께 창건하였다.²⁰⁾ 「봉선사기」에는 1469년(예종 1) 6월에 시작하여 9월에 마쳤다고 기록하였으나 이해 봄부터 공역을 추진하는 중이었는데,²¹⁾ 공기를 실록과 달리 기록한 까닭은 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라 추정된다.²²⁾ 사정을 살펴보면, 같은 해 6월에

18) 金守溫, 「洛山寺鐘銘」,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www.gsm.nricp.go.kr. 세조는 1466년(세조 12) 윤 3월 13일에 낙산사에 거둥하였다. 같은 달 28일자 기사에는 금강산을 거쳐 낙산사·오대산 상원사·월경사·서수경사 그리고 미지산(양평) 용문사를 찾았다.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 윤 3월 13일(갑신)·28일(기해).

19) 閔仁伯, 「出宰安峽以遊金剛」, 『苔泉集』 권5, 遊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민인백(1552~1626)의 생몰년으로 볼 때 그가 방문한 낙산사는 세조연간의 모습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0) 金守溫, 「奉先寺記」, 『拭疣集』 권2, 記類. 「乃立影殿于寺東 名曰崇恩殿」이라 하여 절 동쪽에는 승은전이라 불린 세조 영전을 세웠다.

21) 예종 1년 윤2월 22일자 기사에는 흉년이 들고 농사달을 당했는데 영릉·광릉·봉선사의 역사를 아울러 거행하니 맘이 편치 못하다는 예종의 전교가 실려 있다.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윤2월 22일(정축). 봉선사는 예종 1년 9월 8일 이전에 공역을 마쳤다.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9월 8일(무자).

22)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6월 27일(기묘).

17) 해석에 따라서는 청련당 곁에 있는 재에 주실·승당·선당·주고·포벽 용도의 건물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맥으로 볼 때 이러한 건물들이 재에 속한 부분이라기 독립체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泡湑를 두부 제작소와 목욕간으로 구분 짓는 해석은 다소 앞서 간 면이 있으나 김수은이 사찰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설명하는 가운데 굳이 기술한 이유는 이들 공간이 차지한 비중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논의할 수 없으나 향후 기문에 나타난 당호와 기능 설명을 통해 사찰의 공간구성에 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필요는 분명하다.

간단히 본 글의 전개와 밀접한 泡湑 살펴보면, 泡는 거품, 물 흐르는 소리, 두부 등을 의미하는데 조선 후기 사료에는 造泡寺라 하여 유독 두부를 강조한 능침사찰이 등장하고 있어 조선전기에도 왕실원찰에 나타나는 泡역시 두부를 만드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예종은 학열과 학조에게 봉선사 제도의 工拙을 살펴보고 그대로 머물러 감독하게 했다. 이들은 기둥이 높다거나, 재목을 제대로 다듬지 않았다거나, 장지가 질박하다는 식으로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저평가하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채 세조의 影殿(崇恩殿)까지 헐려다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였지만 급기야는 허락 없이 승당을 헐어내는 사태도 빚어졌다.²³⁾ 얼마 지나지 않아 廚廡 10여 칸도 헐어냈다고 하므로²⁴⁾ 승당뿐만 아니라 부엌채도 헐어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라에서 주도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열·학조는 완공된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정도로 식견과 힘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²⁵⁾

1469년에 완성된 봉선사는 89칸 규모였다. 김수온은 「봉선사기」에 절을 구성한 건물과 개략의 위치 관계를 기록하였는데 앞에서 살핀 두 사찰 기문보다는 상세하다.

3)-㉠正殿層閣三間 四面附楹 名曰大雄寶殿 睿宗大王所命也 3)-㉡東上室三間 四面有退 名曰普應堂 西上室三間 四面有退 名曰海空堂 3)-㉢東曰僧堂三間 前後有退 名曰訪迹堂 西曰禪堂三間 前後有退 名曰雲霞堂 3)-㉣常距長廊六間正門一間 名曰圓寂門 3)-㉤鍾樓層閣三間 名曰清遠樓 3)-㉥中行廊十三間 內天王門一間 名曰證眞門 門東廊三間 名曰雲集寮 次三間 名曰猿歌寮 西廊三間 名曰海納寮 次三間 名曰塵靜寮 3)-㉦東樓房三間 名曰虛寂寮 西樓房三間 名曰燕寂寮 3)-㉧佛供殿六間 名曰香積堂 正廳二間 房一間 名曰興福寮 3)-㉨正廚二間并五間辦都房 前後有退四間 名曰轉熱堂 庖廚之所有樓庫地庫并十六間 傾廊造餅廳 湯子房

23)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6월 27일(기묘).

24)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9월 8일(무자).

25) 이번 글에서는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으나 향후 세조연간 삽화상이 이뤄낸 불사의 양상을 근간으로 삼아 승장으로서의 이들의 면모와 추구한 가람배치·평면구조등을 살피는 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洗閣并十五間 3)-㉩沙門三間 名曰離幼門 3)-㊱以楹計者總八十有九間.²⁶⁾

3)-㉠~㉣은 주불전 영역을 기술하였다. 3)-㉠에 언급한 정전은 주불전을 말하며, 대웅보전이란 당호로 불 때 석가모니불을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층각²⁷⁾구조에 규모는 3칸인데 사면에 기둥이 붙었다는 표현으로 미뤄 3칸은 중층으로 구조부분을 의미하고 여기에 평주열을 부설한 형태로 짐작할 수 있다.

3)-㉡은 동서상실을 담고 있다. 동상실과 서상실은 보웅당과 해공당이란 별도의 당호로 불렸고 규모·구조는 동일하다. 상실의 위치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동서란 수식어는 정전의 동서쪽으로 해석 가능하다. 3칸 규모는 사방 3칸인지 전면 3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면에 틈간을 둔 평면임은 틀림없다.

3)-㉢은 동서쪽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한 다른 기문과 달리 정전과 동서상실의 전면 동서에 자리한 승당과 선당의 존재를 알려준다. 승당과 선당은 각각 방적당과 운하당이란 당호이며, 규모와 평면형태가 동일한데 3칸에 전후에만 틈간을 둔 평면이다.

3)-㉣에 장랑은 주불전 영역과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진 위치에 자리했다. 규모는 6칸에다가 정문 1칸이라 했는데 6칸에 정문 1칸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장랑 6칸, 정문 1칸으로 기술한 듯 하다. 바로 이어지는 ㉤의 중행랑에는

26) 金守溫, 『奉先寺記』, 『拭疣集』 권2, 記類.

27) 층각은 3장에서 다른 분석대상 사찰의 주불전 형태와 함께 살펴보겠지만 중층과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 현재 학계에서는 외관으로 2층이지만 내부가 트인 건물을 일리 중층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층을 사용한 용례가 없고 이 밖의 여러 판찬 사서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중층 건물인 인정전을 조성할 때 기록한 『仁政殿營建都監儀軌』(1805)에도 상층, 하층으로 구분하고 있어 중층이란 용어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중층 대신에 세조연간에 사용된 용어 즉 층각을 사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층이란 표현을 더하면서 글을 진행하였다.

‘內’라 하여 한 건물에 포함되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듯 장랑은 중앙에 1칸짜리 정문을 열고 좌우에 각각 3칸씩 랑을 연결시킨 평면으로 판단된다.

3)-㉔은 장랑과 중행랑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루를 언급하였다. 따로 청원루라는 당호를 쓰고, 규모 3칸에 층각구조였다. 진입방식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층각이란 건물구조로 볼 때 누하진입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⁸⁾

3)-㉕은 중행랑 13칸에 관한 부분으로 한 가운데에 1칸짜리 증진문이라 부른 천왕문을 내고 그 좌우로 6칸씩 요를 연결시켜 대청을 이뤘다. 동·서랑은 각각 3칸 규모 요 2개소로 구성했는데 운집료·원혈료·해납료·진정료라는 별도의 당호로 구분 짓고 있어 실내도 벽체든 장지든 간에 공간은 나눠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3)-㉖~㉗의 서술 순서로 미뤄 사역 내부에서부터 장랑-종루-중행랑으로 공간을 형성한 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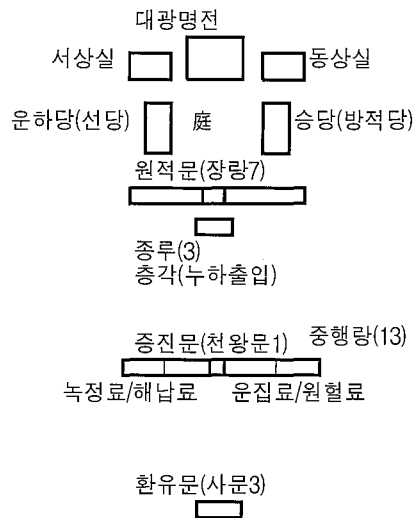
3)-㉘~㉚에 서술된 건물들은 위치를 짐작하기 곤란하다. 단지 서술 수순에 근거하여 ㉕ 중행랑과 3)-㉘사문 사이 영역에 자리했다고 어렵하고, 향적당으로 불린 불공전이 있었으며, 이밖에 부엌을 을 필두로 한 사찰의 실생활에 긴요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음은 확실하다. 3)-㉚의 사문은 절의 초입에 자리한 출입문으로 환유문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봉선사기」를 통해 첫째, 중층으로 지은 층각구조의 주불전을 중심으로 동서상실의 결합, 둘째, 중정을 사이에 둔 동서쪽의 승·선당 배치, 셋째, 장랑과 중행랑으로 구성된 횡랑 배치, 넷째, 층각구조로 지은 종루와 이를 이용한 누하출입 방식, 그리고 다섯째, 사역 안에서부터 정문-천왕문-사문으로 구성된 산문체계를

파악하였는데 그림 3에 이를 요약하였다.

2-4. 중창 正因寺와 「正因寺重創記」

정인사는懿敬世子(도원군, 1438~1457)의懿墓(뒤에 경릉으로 승격, 사적 제198호) 곁에 창건한 능찰이었다. 세조는 1458년(세조 4) 玄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을 만들라 지시했고,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열두 달 만에 완공하였으므로 1458년이나 1459년에 창건하였을 것이다.²⁹⁾



<그림 3> 봉선사 배치 추정안

성종 초에 들어서 정인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 의경세자의 부인 仁粹王妃는 자신의 둘째아들 肅山君[성종]이 즉위하자 정인사를 고쳐 짓기로 작정하였다. 1471년(성종 2) 인수왕비는 절을 창건할 당시에 급속하게 지어 재목이 매우 좋지 못하고 지음새도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창 논의를 시작하였다. 며느리의 행보를 지켜보던 대왕대비 貞禧王后는 맏아들 의경세자와 더불어 둘째아들 예종을 위해 자신도 동참하기를 원했다. 대왕대비는 의경대왕과 예종의

28) 여기에 건 범주는 1469년(예종 1) 8월 29일에 종을 완성했다.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 8월 29일(기사).

29) 세조가 명을 내린 시기에 따라 창건연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12개월이란 공기를 감안할 때 1458년보다는 1459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玄室이 아주 가까워서 한 절의 종소리가 서로 들릴만하므로 인수왕비와 힘을 합쳐 공역을 이루면 쉽게 성사될 것이고, 두 아들을 위한 자신의 정성도 이루어질 것이란 의견을 역설하였다. 중창공역은 1471년 2월에 시작하여 그 해 10월에 마무리하였는데 규모는 119칸에 이르렀다.³⁰⁾

정인사 중창공사를 맡아 일을 추진한 승려는 雪峯으로 왕실을 대행한 단순한 공사감독이 아니라 건축계획 전반에 걸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그는 정인사 중창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당 제도와 간살의 넓고 좁음을 건축주라 할 수 있는 두 대비를 비롯한 왕실과 논의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³¹⁾

김수운이 쓴 다른 기문과 비해 「정인사중창기」는 건물간의 관계와 배치를 자세하게 다룬 편이어서 애매모호한 다른 기문의 내용까지 보완해주는 편이다.

4)-㉑正殿層閣三間 別梵雄殿 4)-㉒東西各有翼 東上室四間 名圓澄堂 西上室四間 名法樂堂 4)-㉓僧堂三間 名探玄堂 禪堂三間 名法雲堂 則東西分庭相向 4)-㉔南橫長廊十七間 以爲飯僧食堂之處 中正門一間 名曰圓寂門 東別室二間 名曰八還寮 4)-㉕長廊外 縱立鍾閣一間 名振法樓 上樓鍾鼓 下通出入 4)-㉖鍾閣之東樓室三間 名曰伴鶴寮 西樓室三間 名曰琢磨寮 4)-㉗橫立外廊十八間 中爲中門 名

曰妙覺門 中門之東二間曰斷感寮 次二間曰七徵寮 次二閣曰枕雲寮 西二間曰玩珠寮 次二間曰發眞寮 次二間曰待客虛室齋廚室五間 4)-㉘三寶正廳三間 名曰雙清寮 西上下樓庫各三間 熟設房四間 4)-㉙正殿後羅漢殿三間 名曰應眞殿 4)-㉚外沙門三間 名曰四弘門 4)-㉛寺外南造泡牛馬舍并十五間 客室三間 寶長庫東西并九間 總一百十九間.³²⁾

4)-㉑~㉚까지는 사찰의 주불전 영역을 설명하였다. 주불전은 범용전으로 층각 즉 중층 건물이며, 규모는 정면 3칸이다. 범용이란 당호로 불 때 석가모니를 봉안한 전각으로 판단된다. 불전으로 쓰지 않고 정전이란 지칭을 사용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4)-㉑에 나오듯 정전 좌우로는 부속채[翼]가 있는데 각각 원증당과 법락당이란 당호를 붙인 동서 상설이며 규모는 4칸으로 동일하다. 4)-㉑은 승당과 선당에 관한 내용으로 규모는 둘 다 3칸이며 심현당과 법운당이란 당호를 썼다. 두 건물은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중정 남쪽에는 4)-㉒에 언급한대로 가로로 장랑이 자리 잡았는데 규모는 17칸으로 식당, 문, 료 등으로 이루어졌다. 가운데에 1칸짜리 정문인 원적문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문을 중심으로 동서로 각각 8칸씩 건물이 연결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동쪽 8칸 가운데 2칸은 별실 팔환료였으나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맥으로 미뤄 서쪽 8칸은 飯僧하는 장소인데 전체를 식당으로 썼는지는 불확실하나 뒤에 나올 주방이 5칸 규모여서 8칸 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4)-㉓~㉔까지는 장랑 밖의 종각과 누실 영역이다. 종각은 1칸짜리 진법루로 특별히 중방향으로 배치를 기술하였다. 상부에 종을 달고 누각 아래를 통해 출입한 누하진입 방식임이

30) 金守濶, 「正因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정인사 중창 이후 연이은 원찰 공사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1475년(성종 6) 토목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찰의 역사가 없는 해가 없어 올해는 봉선사를 짓고, 이듬해는 정인사를 지으며, 신록사의 수리가 끝나자마자 회암사의 역사가 이어져 시작되니, 그 낭비가 심하다는 상소가 올라왔다[『성종실록』 권55, 성종 6년 5월 10일(무오)]. 예종의 능은 昌陵(사적 제198호)으로 서오릉 경내에 덕릉과 지근거리에 있다. 두 능 사이에 흥릉(영조의 비 정성왕후)이 자리하고 있다.

31) 金守濶, 「正因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설준은 정인사를 중창하고 나서 주지를 역임하였다.

32) 金守濶, 「正因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다. 종각 동서에는 각각 3칸 규모의 누실이 있는데 반학료와 탁마료란 당호를 붙였다. 누각 구조인 누실과 종각은 한 채의 건물일 여지도 있지만, 「정인사중창기」에서 여러 칸짜리 한 건물을 설명할 때 전체 몇 칸이라 명시하고 개별 규모와 당호를 적는 기술방식을 취하고 있어 설명한 이들은 독립된 건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4)-㉔은 종각 전면에는 자리 잡은 외랑 18칸을 설명하였다. 중문인 묘각문을 기준으로 좌우에 寮와 부엌을 둔 평면구성이다. 동서쪽 모두 각각 2칸짜리 료를 세 개씩 마련하고 서쪽에는 주실 5칸을 만들었다. 따라서 문 동쪽은 6칸이고, 서쪽은 11칸 규모여서 문을 기준할 때 좌우 대칭이 아니다.

4)-㉕은 외랑 밖과 외사문 안쪽 영역인데 기문으로는 배치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동쪽 영역에 자리한 쌍청료는 삼보정청으로 설명하고 있어 삼보와 관계 깊은 장소로 판단되나 용도는 알 수 없다. 삼보정청 서쪽에는 누고 3칸과 4칸 숙설방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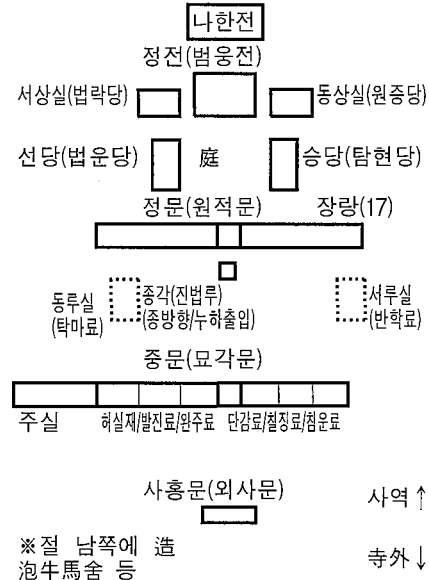
4)-㉖은 정전 뒤편에 배치한 나한전을 설명하는데 규모 3칸에 당호는 응진전이다.

4)-㉗는 외사문에 관한 내용인데 4)-㉘를 참고하면 이를 경계로 사찰 내외를 구분하였다. 외사문은 사홍문으로 3칸 규모여서 횡랑 없이 문만 시설한 건물로 짐작된다.

4)-㉙에는 절 밖의 각종 공간을 설명하였다. 중요한 몇 기능을 보면, 두부를 만드는 기능 [造泡]과³³⁾ 우마사는 아울러 15칸이며, 객실은 3칸이고, 동서로 둔 보장고는 합쳐서 9칸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각각의 위치는 알 수 없다.

33) 능침사찰은 造泡寺로도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두부를 만드는 일을 수행했다. 조포사에서 두부 만드는 건물을 절의 어디에 두는가는 아직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인사의 사례에 국한되는 문제겠지만 적어도 이 절에서는 외사문 밖에 별도 영역에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㉚~㉛까지 합쳐서 119칸 규모로 기록하였지만 기문의 칸수를 합산하면 102칸으로 차이는 있다.



<그림 4> 정인사 배치 추정안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림4]를 작도하였으며, 「정인사중창기」에 집약된 건축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전으로도 지칭한 주불전은 범용전으로 당호를 사용하였으며, 3칸 규모에 層閣구조였고, 正殿과 上室로 결합된 耳房形³⁴⁾ 평면을 취했다. 주요한 건물은 中庭 중심으로 배치하고, 주불전 뒤편에 별도 예불공간인 나한전을 조성하였다. 사역을 출입하는 문은 세 개소로 만들고, 橫廊을 중첩한 방식으로 공간을 구획하며, 누각을 두어 누하출입하는 진입방식을 고안했다. 사역 밖에는 여러 용도의 건물군과 함께 두부 만드는 조포 기능을 시설하였다. 외사문을 경계로 하여 사역 내외를 강조한 기준은 염두에 둘만하다.

34) 耳房形은 평면형태에 착안한 용어로 건물의 기능에 관점을 둔 용어는 아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3장 2절 正殿과 上室의 조합에서 다했으나 정인사의 정전과 상실의 결합형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먼저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 세조연간 왕실원찰 주불전과 上室의 관계

3-1. 주불전의 層閣구조

표 1에 정리한 대로 주불전은 법당·불당·불전·정전 등 다양하게 불렸으나 구조는 주로 層閣이었다. 층각구조는 다층탑까지 포함하여 층각으로 표현한 용례도 보이지만 대체로 내부는 통층으로 트인 중층과 동일한 용어라 정의할 수 있다.

[표 1] 주불전의 층각구조

사찰명	명칭	주불전 당 호	주존불 (추정)	구조	규모	준공 연도
원각사	불당	대광명전	비로자나	층각 (?)	층각(추정)	1465
상원사	불전	-	-	-	층각(추정)	1466
봉선사	정전	대웅보전	석가모니	층각	3칸/四面附楹	1469
정인사	정전	범용전	석가모니	층각	3칸	1471

원각사의 주불전은 기문에 층각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가운데 우뚝하다는 표현과 함께 동·서상실이 존재하므로 다른 원찰과 동일한 서상실-층각-동상실 배치라 할 수 있다.³⁵⁾ 상원사 역시 주불전의 구조는 알 수 없으나 동서에 상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층각일 확률이 높다. 봉선사 주불전은 정면 칸수인 3칸만 언급하였으나 사면에 기둥이 붙었다고 하므로 실제 정면 5칸 규모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인사 주불전은 정면 규모인 3칸만 기록하고 있다. 층각을 짓는 구조 수법은 봉선사처럼 뒷간을 부설하는 방식도 있고, 뒷간이 없어도 중층구조는 결구할 수 있으므로 3칸 층각구조로 해석하기로 한다.

이렇듯 주불전은 층각구조를 근간으로 삼아

35) 홍유손, 『篠叢遺稿』, 「詩」, 圓覺寺東上室金守溫徐居正洪允成呼韻時習悅卿... 홍유손(1431~1529)의 문집에 실린 시인데 서거정(1420~1488), 홍윤성(1425~1475), 김시습(1435~1493)의 생몰년으로 볼 때 하한은 1475년 이전이므로 원각사 창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동상실에 모여서 시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모와 뒷간 부설 여부에 따라 여러 구조방식과 평면형태를 창출하였을 것이다. 분석대상이 아닌 사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密城君이 단월로 참여한 묘적사의 불전은 3칸 규모인데 전후에만 퇴를 둔 구조였다.³⁶⁾ 표 1에 묘적사를 포함하면 주불전 평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3칸+사면뒷간(봉선사), 3칸(정인사), 3칸+전후뒷간(묘적사)이다. 실제 이들 층각이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없지만 다소나마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관음현상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조연간의 자료인 「관음현상기」(그림 5)³⁷⁾에는 미지산 상원사의 정전을 담은 판화가 실려 있는데 중층건물 한 채가 사찰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측면은 규모나 구조 모두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정면은 3칸이며, 우진각 지붕 위에 다시 팔작지붕을 올려 둔 층각구조임이 틀림없다. 상원사 층각의 구조수법을 추정하면, 상층기둥은 하층기둥보다 안쪽에 있다. 이런 체감비율로 볼 때 하층 서까래 위에 명예목을 받치고 그 위에 상층변주를 세워 지지한 구조체로 짐작된다.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정인사 주불전의 외관과 구조를 시사해주는 그림이라 하겠다.

층각구조로 지은 주불전 실내는 높고 넓었으므로 내부에 불안한 불상도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주불전을 일러 법당·불당·불전·정전으로 다양하게 지칭하지만 별도로 당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으로 주불의 성격은 짐작할 수 있다.

36) 金守溫, 「妙寂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묘적사를 후원한 밀성군(1430~1479)은 세종의 다섯 번째 서자로 이외에도 세조연간 왕실원찰 건립에 종종 참여한 인물이다.

37) 崔恒, 「觀音現相記」, 卍6611, 卍장각한국학연구원, www.e-kyujanggak.snu.ac.kr. 1책 7장으로 이루어졌으며 1462년(세조 8) 세조가 미지산 상원사에서 관음현상을 친견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여 편찬된 책이다. 미지산(용문산) 상원사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용문산 중턱에 있다. 「관음현상기」에는 曇華殿에서 솟아오른 흰 기운이 관세음보살로 변했다고 한다. 설명으로 미뤄 층각의 당호는 담화전으로 보인다.

원각사는 대광명전이란 당호로 불 때 당연히 비로자나불을 모셨을 것이며, 상원사의 주불전 존상은 당호를 거론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봉선사와 정인사는 대웅보전·범웅전이란 당호에 근거할 때 석가상을 봉안하였을 것이다. 네 사찰 가운데서 비로자나상 1개소, 석가상 2개소, 1개소는 파악불명으로 나타나 주존 불에 대한 완고한 기준은 없었던 것 같다. 두 사찰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능침사찰인 봉선사와 정인사만이라도 능침사찰 성격과 부합하는 아미타불을 모셔야 하는데 석가상을 모신 대웅보전과 범웅전을 주불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공통점을 두고 왕릉을 지키고 살피며, 재향을 올리는 능침사찰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배치였다고 해석한 견해는 요긴하나³⁸⁾ 왕실원찰에 모신 주불과 주불전의 명칭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5> 「관음현상기」(미지산 상원사)의 층각불전(출처:www.e-kyujanggak.snu.ac.kr)

3-2. 正殿과 上室의 조합

표 2에 나오듯이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주불전은 좌우에 상실이란 부속채를 거느린 형태였다. 이밖에 같은 시기에 지은 妙寂寺도 불전 동서쪽에 상실을 두는 배치였는데 김수온은 모두 다른 질과 같다는 투로 기술하고 있어³⁹⁾ 불전과 상실의 조합은 해당 시기에 널리 사용된 건축경향이 분명하다.

[표 2] 정전과 東西上室

사찰명	東上室			西上室		
	칸 수	당호	구 조	칸 수	당호	구 조
원각사	-	(존재)	-	-	(존재)	-
상원사	-	- (존재)	佛殿通爲 一場	-	- (존재)	佛殿通 爲一場
봉선사	3	普應堂	四面 有退	3	海空堂	四面 有退
정인사	4	圓證堂	-	4	法樂堂	-

비문에는 적히지 않았으나 원각사도 대광명전 동서에 상실을 조성했다. 간접자료지만 원각사 동상실에서 시를 짓고, 1488년(성종 19) 원각사 수리하는 일을 거론하면서 나라에서 간여하지 말기를 청하는 글에는 원각사 서상실을 등장하기 때문이다.⁴⁰⁾ 상원사의 상실은 2)-㉠대로 불전 동서쪽에 모두 상실을 두었던 조선 전기 가람배치의 경향을 방증한다.

상실과 불전의 어떤 축으로 조합되었을까. 불전과 나란한 위치였을까, 아니면 불전보다 앞이거나 뒤에 자리했을까. 상원사를 다룬 2)-㉠에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실려 있다. 상실 벽에 장지를 설치하고 이를 들어올리면 불전과 한 공간이 된다고 밝혀둔 부분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상실과 불전, 그리고 동상실이 횡축선 위에 나란히 자리해야 연출이 가능하다. 이로써 상원사의 불전과 동서상실은 □□□ 모양으로 배치되었으며, 다른 원찰에서도 이와

38) 손신영, 「수국사의 역사적 추이와 가람배치」, 『강좌미술사』 3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304쪽.

39) 金守溫, 「妙寂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40) 『성종실록』 권218, 성종 19년 7월 3일(갑자).

흡사한 방식으로 불전과 상실을 배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기문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듯이 상실의 벽을 없애고 장지를 설치하는 방식만은 아마도 상원사 고유의 장치였다고 생각된다. 공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이러한 고안은 양쪽 상실과 주불전을 터서 동시에 사용할 정도의 대규모 실내 활동 즉 불교의례를 거행할 필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⁴¹⁾

봉선사 상실은 각각 3칸 규모로 사방에 퇴를 둘렀다. 김수온이 다른 기문에서 서술한 방식으로 미뤄 3칸은 퇴를 제외한 규모로 추정된다. 사면에 퇴를 두었다는 기술 내용은 불전과 상실의 관계를 추정할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뒷간을 부설한 평면형태이므로 불전과 상실은 인동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평면에서는 그렇다 해도 한 지붕 아래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 개별로 지붕을 구성했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인사 상실은 불전 동서의 날개로 적고 있어 불전과 상실의 위치 관계를 유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규모는 4칸으로만 밝혔지만 봉선사의 예를 따르다면 정인사 역시 3칸에 퇴를 부설한 평면일지 모른다. 「관음현상기」 [그림5]에는 중앙에 정면 3칸인 중층 건물이 있고 그 좌우로 역시 3칸 규모의 단층집이 각각 자리하고 있어 층각 주불전 옆에 동서로 상실을 배치한 모습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들 네 사찰은 불전 동서에 상실을 마련하고 각각 동상실, 서상실로 불렀으며, 상실과 불전의 결합은 □□□ 형태의 평면배치를 취하였다. 양주 회암사지 최북단에 자리한 □□□형태의 건물지는 아주 적합한 실례에 속한다. 기문에 의하면 이 건물지는 고려 말에 정청과 방장 용도로 지었다.⁴²⁾ 서방장-정청-동방장으로 연결된 이 건물지의 연원을

41) 계를 수행했던 왕실원찰의 기능도 실마리이지만 수록 사라는 상원사만의 고유한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元代 선종사원의 방장제도에서 찾으려한 최근 연구는 아주 흥미롭다. 나아가 각 건물지의 기능을 구별하여 정청은 寢房으로, 서방장은 이름대로 방장의 거처로, 동방장은 빈객의 거처인 客位로 보았다. 그러나 방전을 깬 정청과 좌우의 온돌방을 연결시킨 평면형태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고려에서 행례와 거처의 기능을 갖춘 건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고려의 고유한 형태로 해석하고 있어⁴³⁾ □□□형 평면이 특정 시기와 유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 건축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평면은 현존하는 목조건물로 따지자면 조선시대의 객사와 문묘 명륜당 같은 극히 한정된 수량에 불과하지만 고구려 안학궁터와 신라 안압지의 동궁터를 비롯하여 파주 혜음원지·울진 다시원지·개성 고려왕성의 건물지처럼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여럿 찾아지고 있으므로 특정 시기와 유형에 한정된 평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런 평면형태를 두고 무엇이래 불렀는지는 불확실하나 의미 있는 사료가 있어 참고해보기로 한다. 1395년(태조 4) 완공한 새 궁궐[경복궁]의 배치상황과 규모, 구성을 설명한 가운데 耳房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다른 건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방은 연침과 보평청 두 전각에만 등장한다. 연침은 7칸으로 동서쪽에 이방을 각각 2칸씩 부속시켰고, 보평청은 5칸에다가 동서쪽에 이방을 각 1칸씩 단 형태였다. 당시에 太廟의 太室 곁에도 부속채를 시설하면서도 이방이라 부르지 않고 翼廊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방과 익실은 차이가 있는 공간

42) 李穡, 「天寶山檜巖寺修造記」, 『동문선』 권73, 기, 한국고전종합DB.

43)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6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58~63쪽.

임을 가늠할 수 있다.⁴⁴⁾

이방을 가리켜 “殿宇 혹은 正房의 양쪽에 體量을 축소시켜 부속한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건물의 좌우에 위치한 때문에 雙耳와 유사한 형태에서 이름을 얻었다”⁴⁵⁾는 중국 학계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耳라는 글자를 통해 중심에 자리한 건물보다는 규모가 작으리란 추측은 어렵지 않다. 향후 보다 체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우선은 조선초기 사료에 착안하여 이방형 평면으로 잠정 부르려고 한다.⁴⁶⁾

본 글에서 상세하게 다룰 만한 연구 성과는 이루지 못했으나 상실의 용도는 규명이 필요하다. 유사한 평면이지만 회암사와 분석대상인 내사찰의 평면은 용도가 다르다. 중심부터 자리한 건물도 정청과 불전으로 차이가 있으나 부속채 또한 방장과 상실로 달라서 일견 관계없어 보인다. 보통 방장은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을 말하지만 반드시 주지만이 아니라 총림의 어른을 포함할 수도 있다.⁴⁷⁾ 상실은 아직 명확한 사료를 찾지 못한 대신에 이와 연관된 上人이란 용어가 있어 관심을 끈다. 상인은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승려들을 높여 부르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⁴⁸⁾ 상인을 위한 공간을 상실로 불렀을 가능성은 없을까. 다시 말해서 방장이란 당호를 사용한 시기보다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승려의 범위가 확대된 즉 상인을 위한 건물을 상실이

라 불렀을 듯하지만 단언은 어렵다.

4. 세조연간 왕실원찰 전각의 구성과 배치

4-1. 중정을 중심으로 한 주불전과 僧·禪堂의 배치

표 3을 보면 원각사는 왼쪽에 선당을 두고, 오른쪽에는 운집이란 당호로 미뤄 승당으로 파악되는 건물을 배치시켰다. 상원사는 승·선당을 두었음은 분명하나 위치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 2)-㉔~㉕의 사료를 해석하기에 따라 청련당 서쪽에 따로 한 구역을 두고 齋·廚室·僧堂·禪堂·廚庫·泡湏之處를 갖췄다고 볼 수도 있다.⁴⁹⁾ 하지만 청련당 서쪽에 재를 두었다는 문장과 주실·승당·선당·포벽지처를 분리해서 본다면 승선당의 위치는 다른 절처럼 대웅전 앞 중정에 있었을 수도 있다. 봉선사와 정인사는 동쪽에 승당, 서쪽에 선당을 배치시켰다. 정인사는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향했다고 적고 있어 승·선당의 정면 방향은 승당은 서향, 선당은 동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원각사와 상원사의 승·선당은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봉선사와 정인사는 3칸이며, 특히 봉선사는 승·선당 앞뒤로는 뒷간을 부설한 평면형태였다.

[표 3] 僧·禪堂의 위치

사찰명	東(좌)			西(우)		
	기능	당호	규모	기능	당호	규모
원각사	禪堂	-	-	雲集	-	-
상원사	○	-	-	○	-	-
봉선사	僧堂	誘迹堂	3 앞뒤뒷간	禪堂	雲霞堂	3 앞뒤뒷간
정인사	僧堂	深玄堂	3	禪堂	法雲堂	3

44)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9월 29일(경신).

45) 王效淸 주편, 『中國古建築述語辭典』, 문물출판사, 2007, 132쪽.

46) 耳房의 독음을 어떻게 발음해야할까. 한자 발음대로 이방으로 읽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이두 표현이므로 낫방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47) 방장은 사방으로 1장이 되는 방 또는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유마거사가 사방 10척되는 방에 3만2천 사자좌를 벌려 놓았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서 나아가 총림의 최고 어른을 일컫는 말로 쓴다.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불교사전.

48)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불교사전.

49) 수록사였던 진관사의 서쪽 영역을 연상시키는 배치로 보기도 한다. 이강근, 「진관사 수록계 학술논총」,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진관사(수록재보존위원회), 2009, 29쪽.

중정과의 관계를 보면 원각사와 상원사는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봉선사와 정인사는 주불전과 승·선당이 중정을 중심으로 삼각형 구도를 취하고 있어 얼핏 중정형 가람배치와의 유사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일반적인 중정형에서는 주불전 맞은편에 누각이 배치된다는 점만 다를 뿐 주불전 앞마당이 4동의 건물로 둘러싸였던 점은 같다는데 착안하여 중정형의 초기 모습을 여기서 찾기도 한다.⁵⁰⁾

분석대상보다 조금 앞서지만 昭憲王后(1395~1446)가 발원한 圓通菴도 선승양당을 동서에 두고 있어⁵¹⁾ 중정을 사이에 둔 승·선당의 대칭 배치는 조선초기의 경향으로 가दा이 잡힌다.

원각사와 상원사 승·선당으로 미뤄 승·선당 위치는 다소 유동성이 보이지만 비교적 뒤에 조성한 봉선사와 정인사는 동쪽에 승당을, 서쪽에 선당을 배치하는 기준이 자리를 잡았다고 추정된다.

분석대상인 네 사찰은 대개 평지거나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입지한 반면에 「관음현상기」에 그려진 미지산 상원사는 가파른 산지에 터를 잡았으면서도 유사한 배치를 취하고 있어 건립지역이나 지형에 구애받지 않았던, 즉 당시 왕실원찰에 주로 적용된 가람배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주불전 뒤편의 예불공간 조성

표 4처럼 원각사와 정인사는 주불전 배후에 또 다른 예불공간을 조성한 반면에 상원사와 봉선사는 마련하지 않았다. 원각사 해장전은 1465년(세조 1)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원각경』을 봉안한 전각으로 經板을 보관하는 판

50) 손신영, 「수국사의 역사적 추이와 가람배치」, 『강좌미술사』 3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300쪽. 정인사에 관한 유일한 선행연구로서 정인사의 창건, 중창과정을 상세하게 살피고 배치를 비롯하여 조선전기 왕실원찰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51) 金守溫, 「원통암중창기」, 『拭疣集』 권2, 記類.

[표 4] 주불전과 뒤편의 예불공간

사찰명	주불전	주불전 뒤편 전각	용도	규모
원각사	대광명전	해장전	경전	
상원사	-	-		
봉선사		-		
정인사	梵雄殿	나한전	나한	3칸

전과는 구분되는 범보를 신앙하는 예불공간이다.⁵²⁾ 정인사에 조성한 나한전은 3칸 규모인데 응진전이란 당호로 미뤄 석가모니와 가섭·아난, 그리고 16나한과 범천·제석천을 모신 예불공간임을 알 수 있다.

두 사찰에서 나타나는 주불전 뒤편의 예불공간은 회암사지에서도 볼 수 있다. 회암사지에는 주불전인 보광명전 뒤편 넓은 공간에 다양한 기능의 전각을 두었는데 제일 뒤편 영역의 동서쪽에 대칭으로 각각 3칸 규모의 나한전과 대장전을 배치시켰다. 임진왜란 이후 유행한 중정형 배치의 경우 주불전 뒤는 대개 능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불전 뒤편에 예불공간을 조성하는 전통이 조선초기 왕실원찰에 일부나마 남아있었던 증거라고 생각된다.

4-3. 橫廊의 증첩과 山門체계

[표 5] 횡랑의 용도와 규모

사찰명	橫廊 1			橫廊 2		
	명칭	규모	구성/용도	명칭	규모	구성
상원사	南廊					
봉선사	長廊	6	문(1) 이외 미상	중행랑	13	寮(3)-寮(3)-門(1)-寮(3)-寮(3)
정인사	長廊	17	문(1), 별실(2), 반승, 석당	外廊	18	廚室(5)-寮(2)-寮(2)-寮(2)-門(1)-寮(2)-寮(2)-寮(2)

1) 橫廊

횡랑은 분석대상 기문에 확실하게 언급된

52) 이런 영역성 외에도 명대 이후에 들어서 나타나는 장경각의 배치와 일맥상통하는 특성을 보여 검토할 부분이나 나중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표 6] 三門으로 중첩된 山門체계

사찰명	수량	문1			문2			문3		
		당호	규모	위치	당호	규모	위치	당호	규모	위치
원각사	3	寂光門	-	-	般若門	-	-	解脫門	-	-
상원사	-	문은 기록에 없으나 南廊은 확인되며, 남랑에 문을 열었을 가능성								
봉선사	3	圓寂門 (정문)	1	장랑(7칸)중앙	天王門	1	중행랑(13칸)중앙	離幼門 (沙門)	3	사역입구
정인사	3	圓寂門 (정문)	1	장랑(17칸)중앙	妙覺門 (中門)	1	외랑(18칸)	四弘門 (外沙門)	3	사역입구

대로 가로방향의 행랑이란 방향성이 분명한 행랑을 말한다. 표 5에 정리한 횡랑을 보면 원각사는 횡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원사의 남랑, 봉선사의 장랑과 중행랑, 정인사의 장랑과 외랑은 모두 횡랑 방식을 채택한 행랑에 속한다.

상원사는 남랑 밖에 누각을 지었다고 하는데 전체 56칸 규모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남랑 이외의 횡랑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므로 횡랑을 한 겹만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봉선사 횡랑은 절 중심에서부터 長廊, 中行廊 순으로 자리하고 있어 두 겹으로 중첩된 행랑을 갖추었다. 장랑은 규모 6칸으로 중앙에 문 한 칸을 열었으며 나머지 다섯 칸의 용도는 알 수 없다. 중행랑은 13칸인데 장랑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한 칸은 문으로 개방했다. 문 좌우에는 3칸짜리 요를 안배하고 있어 각 요와 요 사이는 벽이든 장지든 간에 공간을 분할할 평면으로 판단된다.

정인사 행랑도 사역 중심에서부터 장랑, 외랑 순으로 배치시켰다. 장랑은 17칸 규모인데 가운데 한 칸은 정문으로 개방하고, 나머지 16칸은 식당, 요사로 쓰였다. 외랑은 18칸으로 장랑과 동일하게 가운데에 중문을 열었으며, 이외 17칸에는 요사와 부역을 들였다. 네 사찰 가운데 정인사의 규모가 제일 크듯이 횡랑 규모도 제일 크지만 공간구성은 다른 사찰과 다르지 않다.

표 6이 나타내듯 횡랑의 겹은 사찰 규모와

관계가 깊은 것 같다. 분석한 기문에는 해당 건물의 정면 칸수라고 판단되는 규모와 전체 규모만 기록하였지만 이는 실제 사찰의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된다. 전체 규모만 가지고 본다면 56칸 규모인 상원사는 횡랑을 한 겹 시설하였으며, 89칸인 봉선사와 119칸인 정인사는 두 겹으로 횡랑을 조영하였다. 전체규모로 봐서 300여 칸에 달했던 원각사는 봉선사와 정인사의 예를 따라 두 겹 횡랑을 배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세 개의 산문이 이를 반증해준다.

분석대상 사찰에 보이는 횡랑은 사역을 에워싸는 회랑이 아니라 橫廊 즉 절의 중심축을 가로지르는 방향과 일치시킨 횡방향에 건물을 배치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종방향 행랑은 사라지고 횡방향 횡랑만 남겨둔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2) 門

표 6에 정리한 대로 상원사를 제외한 세 사찰은 모두 외부로부터 중첩된 세 개의 문을 지나 주불전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원각사는 해탈문-반야문-적광문 순으로 문을 두었다. 문의 구조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며 기능도 알 수 없다. 상원사는 문에 관한 기록은 누락했지만 남랑을 두었기 때문에 남랑 가운데에 문을 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봉선사는 사역 외부에서부터 환유문-천왕문-원적문을 거쳐 중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정인사는 사역

[표 7] 누각과 진입방식

사찰명	명칭	위치	규모	구조	용도	진입방식	비고
원각사	法雷閣	불명	-	-	鐘	불명	
상원사	루	南廊之間	5	누각	鍾磬道具	樓下出入	남랑의 밖인지, 남랑에 속한 누각인지는 불명확
봉선사	淸遠樓	정문과 천왕문 사이	3	층각	鐘		층각 구조여서 누하출입 가능성
정인사	振法樓	정문과 중문 사이	1	누각	鐘鼓	下通出入	종방향

입구에 열린 사후문에서부터 묘각문-원적문 순으로 통과하여 내부에 도달한다.

문은 별도의 당호 외에 고유기능을 암시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봉선사와 정인사의 예지만 주불전 영역 전면에 열린 문은 정문이며, 그 다음은 중문, 바깥문은 사문 또는 외사문으로 불렸다. 정문과 그 다음 문은 모두 횡랑의 가운데 한 칸을 문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횡랑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원각사와 상원사도 횡랑을 시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문 가운데 봉선사는 천왕문이라 하여 사천왕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시사한다. 천왕문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천왕과 연관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규모가 한 칸이어서 당호만 그렇게 불렀는지 실제 존상을 안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봉선사와 정인사의 외사문은 횡랑 없이 3칸 규모의 문을 설치하였는데 형태는 짐작하기 어렵다. 솟을삼문이든 평삼문이든 세 칸 모두 문짝을 시설하였을 수도 있으나 현존하는 산문의 건축형태를 생각할 때 외사문 좌우 각 한 칸은 존상을 시설하고 가운데 한 칸만 통로로 개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사찰은 삼문체계가 아닐 수도 있는 듯 하다. 횡랑에서 살폈듯이 상원사는 남랑 즉 한 겹의 횡랑을 두었고, 묘적사는 장랑과 외행랑으로 두 겹에 걸친 횡랑을 시설했지만 외행랑에다 사문을 개방한 방식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봉선사와 정인사처럼 사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횡랑의 겹 수도 최대 두 겹 건축역사연구 제18권 5호 통권66호 2009년 10월

으로 시설하였듯이 산문도 최대 세 개소까지 마련하였던 삼문 구성의 배치체계였다.

4-4. 누하출입 방식의 누각

누각 아래를 지나 절 안마당인 중정으로 올라가는 출입방식은 조선후기 중정형 가람배치의 기본이지만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논의가 분분하다. 표 7에 정리한 대로 원각사를 제외한 다른 세 사찰은 누하출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먼저 종각 위치가 확실한 원각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원각사는 종을 매단 종각용도는 드러났지만 사역 내에서의 위치도 불명확하고 진입방식도 확인할 수 없다. 종각은 오른쪽에 둔다는 의견을 따라 원각사 종각을 대광명전 오른쪽 영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⁵³⁾ 본고에서 분석한 세조연간 원찰 배치와 비교할 때 그림 1에 도시한대로 반야문과 적광문 사이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상원사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기문에 ‘南廊之間’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누각의 위치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누각을 남랑과 한 지붕 아래에 포함된 일부로 해석하느냐, ‘남랑의 사이’ 즉 남랑 밖의 별도 건물로 풀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른 기문의 예와 김수온의 서술방식을 염두에 두고 남랑 밖에 누각을 둔 것으로 풀었으며 그림 2에 도시하였다.

53) 사종민, 「원각사의 사역규모와 가람배치 고증」,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창간호, 2003, 87쪽.

봉선사는 정문과 천왕문 사이에 청원루를 배치하였는데 진입방식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누라는 용어와 층각이란 구조로 볼 때 당연히 누각형태였다고 파악하였다. 정인사는 정문과 중문 사이에 진법루를 배치하였는데 누각 아래를 통해 드나드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상원사·봉선사·정인사 세 곳은 누각 아래로 출입하는 방식인데 근래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누하진입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김수은은 '누하출입' 또는 '하통출입'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관심을 갖고 살펴 볼 용어가 아닌가 한다.

누하출입방식을 주도하는 누각은 주불전-정문-누각이 중심축 위에 정연하게 자리하는 배치였다. 원각사와 상원사는 기문 내용이 소략하여 단언하기 어려우나 봉선사와 정인사에서는 확연하게 부각되는 위치였다. 조선 후기 중정형 가람배치는 정문 없이 누각 밑으로 들어서는 방식이 주류인데 언제 이렇게 정착되었을까. 이에 대해 18세기를 거치면서 주불전-정문-문루의 배치가 주불전-문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정문이 생략되는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중정형 배치가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⁵⁴⁾

누각의 구조나 출입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용도는 모두 종을 비롯한 佛具를 안치하는 장소였다. 원각사는 종, 상원사는 종과 경쇠, 봉선사는 종, 정인사는 종과 북을 누각에 걸었다. 다른 불구도 안치하였지만 중심은 종에 두었던 건물이 분명하다.⁵⁵⁾ 이러

한 종류를 두고 조선 초 국창원찰에서 정문 밖에 종루가 등장하는 배경을 薦度齋를 전담 하던 당시 사원의 기능에서 찾으면서 이런 불교의식을 거행할 때 타종하는 행위가 중요했던 데서 기인했다는 견해는 관심을 가질만하다.⁵⁶⁾

종루의 규모를 밝히지 않은 원각사를 제외 하면 상원사 5칸, 봉선사 3칸, 정인사 1칸으로 제각각이어서 엄격한 규칙이 바탕에 깔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종루가 어떤 방향으로 좌향을 잡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정인사만은 종 방향으로 돌 경우 주위 건물과는 방향성이 달라져 종루만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의도하고 배치시킨 좌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⁵⁷⁾

4-5. 寺域의 경계

사역 경계는 「정인사증창기」에만 등장하지만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해당 기문에서는 외사문을 경계로 하여 사역 내외를 강조하였다. 사역 밖에 조성한 공간은 造泡牛馬廄15칸, 객실 3칸, 寶長庫 등인데 특히 조포 기능을 절밖에 마련한 점은 흥미롭다. 능침사찰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두부를 만드는 기능을 어디서 수행했는가는 아직 규명하지 못한 문제지

호)은 현존하는 조선전기 왕실발원 종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양식으로 평가하였다. 이 논문이 종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역불정척을 통한 불교미술의 쇠퇴, 종 양식에 보이는 중국의 영향만 강조하여 조선종 특유의 독자성에 대해 검토되지 않았던 풍토에서 벗어나 당시 신조류인 중국 명대종의 영향을 일부 보이면서도 조선 특유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형된 양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종에 국한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54) 홍병화,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正門과 門樓의 배치관계 변화」, 『건축역사연구』 6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 60~61쪽.

55) 주경미, 「조선전기 왕실발원종의 연구」 『동양학』 42호, 2007에서 조선전기 왕실에서 발원한 종은 기록을 포함하여 11점이 알려져 있고, 크게 기념비 성격을 띤 朝鐘[운종가종(1398), 돈화문종(1413), 광화문종(1458)]과 왕실의 안경과 추선 및 사찰 중수를 위해 발원한 범종으로 나왔다. 분석대상인 네 사찰의 종을 보면, 상원사와 원각사종은 현존하지 않으며, 봉선사종(보물 제397

56) 홍병화,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正門과 門樓의 배치관계 변화」, 『건축역사연구』 6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 57~59쪽.

57) 종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꽤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 이런 견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 정인사의 경우 사찰 안이 아니라 사찰 밖에 설치하였다는 점은 향후 다른 능침사찰의 배치를 검토할 때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5. 맺음말

기록에 의존한 연구는 모험이 뒤따르지만 현존 건물이 없는 시기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기록은 필수로 살펴야 할 요건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전기 왕실원찰의 모습을 실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마당에 당시 공사 정황을 수록한 김수온의 기문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가 남긴 기문 대부분은 건축에 관한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원찰 조성에 기여한 발원자인 왕실과 불교적 인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원각사·상원사·봉선사·정인사 네 사찰은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겨 세조연간 원찰의 모습을 후세에 전해주는 공훈을 이뤄냈다. 이들 기문을 해석하고 분석한 결과 전각의 평면과 구조, 각 건물간의 관계와 배치 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주불전은 주로 층각 즉 중층 건물이며, 주불전 좌우에는 상실이란 부속체를 배치시켜서 □□□ 평면형태를 연출하였다. 상실과 주불전 사이의 인동간격은 결론을 얻을 수 없었으나 향후 발굴된 건물지 사례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주불전 앞에 열린 중정을 중심으로 동서쪽(좌우)에 승당과 선당을 조성하는 배치가 주류였다. 이런 배치는 조선후기 중정형 가람배치의 연원을 규명하는데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주불전 외에 예불공간을 마련할 경우 주불전 뒤편 영역을 활용하는 경향이 일부 사찰에

서 보였다.

산문체계는 세 개의 문을 둔 삼문방식을 주로 따랐는데 사역 안에서부터 두 개의 문은 횡랑 일부를 문으로 사용하였으며, 제일 바깥 문은 행랑 없는 문간체이다. 주불전 앞 중정과 연결된 문은 정문이라 불렀고 그 다음은 중문, 그리고 제일 바깥문은 외사문 또는 사문이라 부르는 추세였다. 행랑에도 큰 변화가 보이는데 사역을 에워싸는 회랑 대신에 횡방향 행랑 즉 횡랑만 시설하고 있어 회랑의 변모를 엿볼 수 있다.

대부분 누하출입 방식으로 주불전 안마당인 중정으로 진입하였다. 누각은 거의 종루기능인데 정문과 첫 번째 횡랑 사이에 위치하였다. 정인사 누각은 중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외에도 능침사찰의 특성인 조포 기능을 사역 밖에다 둔 정인사의 배치는 향후 조선후기 조포사 연구에 기여할 부분이다.

이상 살펴본 대로 김수온이 기문을 쓴 세조연간 왕실원찰 4개소에서는 사찰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드러나지만 유사점이 더 많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곧 해당 시기 사찰의 건축 경향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4개소 외에도 이러한 경향을 도입한 사찰을 볼 수 있어 왕실원찰뿐 아니라 세조연간에 채택된 건축경향으로 정리 가능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세조연간 왕실원찰을 조성한 배경에는 기문을 쓴 김수온과 함께 삼화상으로 불렸던 신미·학열·학조 외에 이들의 도반 설준이란 나옹해근 문도들의 활약이 숨어 있었다. 본 글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⁵⁸⁾ 이들 사이에는 선종의 계보만이 아니라 나옹해

58) 손신영, 「수국사의 역사적 추이와 가람배치」, 『강좌미술사』 3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301~306쪽에서 설준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근이 중창을 주도한 회암사의 건축과도 긴밀한 관계를 시사하는 요소가 다분하였다. 상세한 연구는 나중에 남겨두었지만 풀어야 할 숙제이며 이를 통해 여말선초, 조선초기로 연결되는 가람배치와 건축구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태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www.sillok.history.go.kr.
2. 『문종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www.sillok.history.go.kr.
3. 『세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www.sillok.history.go.kr.
4. 『예종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www.sillok.history.go.kr.
5. 金守濶, 「洛山寺鐘銘」,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www.gsm.nricp.go.kr.
6. 金守濶, 「大明朝鮮國大圓覺寺碑銘并書」, 『속동문선』 권20, 碑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7. 金守濶, 「妙寂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8. 金守濶, 「上元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9. 金守濶, 「圓通菴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10. 金守濶, 「正因寺重創記」, 『拭疣集』 권2, 記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11. 閔仁伯, 「出宰安峽以遊金剛」, 『苔泉集』 권5, 遊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www.db.itkc.or.kr.
12. 사종민, 「원각사의 사역규모와 가람배치

고증」,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창간호, 서울역사박물관, 2003.

13. 서치상, 「조선왕조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14. 손신영, 「수국사의 역사적 추이와 가람배치」, 『강좌미술사』 3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8.
15. 王效淸 주편, 『中國古建築述語辭典』, 문물출판사, 2007.
16. 이강근, 「진관사 水陸齋 학술논총」, (사)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진관사(수록재보존위원회), 2009.
17. 주경미, 「조선전기 王室發願鐘의 연구」, 『동양학』 42호, 단국대학교, 2007.
18. 崔恒, 「관음현상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www.e-kyujanggak.snu.ac.kr.
19.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불교사전』.
20.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6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21. 홍병화,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正門과 門樓의 배치관계 변화」, 『건축역사연구』 6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
22. 홍유손, 『篠叢遺稿』, 「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23.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혜안, 2005.

접수(2009. 8. 18)

수정(1차:2009. 10. 14, 2차:2009. 10. 26)

게재확정(2009. 10. 30)

Architectural Plan And layout of Buddhist Temples(Wangsil-Wonchal) on through the Study of Records about Temple's Foundation during King Sejo(世祖) Period

Lee, Kyung-Mee

(Institute Director, Gemsung Architects & Associates Co. Ltd)

Abstract

The study on Buddhism architecture in early Joseon dynasty was inactive. The period of King Sejo is important for studying the trend of Buddhism architecture in early Joseon, that was transmitted from the end of Goryeo dynasty, but it was difficult to know its exact situation due to lack of related records. The records were all written by Kim Su-ohn, which are Wongaksabi' 'Sangwonsajungchanggi' 'Bongseonsagi' 'Geonginsajungchanggi'.

The main hall was mainly second floor and there were necessarily annexed buildings at the right and left of the main hall. So the plane figure of □□□ was shown. It was a main stream for monk's living hall and meditation hall to be located at the right and left of yard in front of main hall. This layout may be referred to search for the origin of the layout in courtyard based structure(中庭形) in the late Joseon dynasty.

Most of temples had 3 gates. Some part of horizontal corridor was used as 2 gates and the outer gate, far from main hall, was without corridor. The gate leading to front yard of main hall was called front gate, the next was middle gate and the outer gate was Oisamun(外沙門) or Samun(沙門).

In most of the temples, people could enter into the front yard through pavilion which had the function of bell tower. The pavilions were located between front gate and first corridor. It is thought that this layout of the place for making bean curd outside the temple area will contribute to different studies on temples making bean curd in the future.

The records about temple's foundation studied above are a little different between temples, but have more similarities. These common denominators represent the architecture tendency of Buddhist temples in the related period. It is thought that such a tendency was also shown on architecture of other templ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as well as Buddhist temples.

Key words : Buddhist temple(Wangsil-Wonchal), King Sejo period, Layout of temples, Second floor hall, Horizontal corridor, Architectural plan
